

오제와 람사르협약

2005 년 11 월, 오제는 철새의 습지 서식지로서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협약 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. 람사르협약은 주로 물새의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1971 년 이란의 ‘람사르’라는 도시에서 국제회의가 열린 데서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. 오제와 같은 습지 외에 하천, 호수, 논, 저수지, 육지로 파고든 만(灣), 갯벌, 맹그로브 숲 등이 대상입니다. 2022 년 시점에서 일본에는 53 군데의 람사르협약 습지가 있으며, 전 세계적으로는 이 협약에 조인한 172 개국의 2,500 군데 이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.